

# 분석심리학에 의한 부용지(芙蓉池) 일곽과 이기론(理氣論) 비교연구

## A Comparative Study on Buyongji and Likiron based on Analytical Psychology

최효식\* / Choi, Hyo-Sik

### Abstract

Reflecting the idea of benevolent royal government of King Jeongjo(正祖), the Buyongji(芙蓉池) and Juhamru(宙合樓) of Changdeokgung(昌德宮) are the traditional Korean architecture to represent the Joseon(朝鮮) period.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investigate how the Likiron(理氣論), one of the foremost theories of Joseon Confucianism, was applied to the principle of space composition by analyzing Buyongji and Juhamru with Jung's analytical psychology and to provide basic data to utilize the results in modern space planning. The research findings indicate that Buyongji is the space of Ki(氣) to reflect the reality, corresponds to conscious, and represents the Joseon land and people including Chiljeong(七情). And Juhamru is the space of Li(理) with the ideal of benevolent royal government inherited in it and represents unconscious. It also has each building placed which contained the nature of Sadan(四端) along with Gyujanggak and Jewolgwangpunggwak(齊月光風觀) to represent "Self Archetype" that's the core of human mind. Each representing Ki and Li, Buyongji and Juhamru must have worked as a major composition principle of Likilwonronjeokilwonron(理氣二元論的一元論) that could simultaneously satisfy the practice philosophy of reality and ideal among Likiron.

키워드 : 부용지, 주합루, 이기론, 분석심리학, 왕도정치  
Keywords : Buyongji, Juhamru, Likiron, Analytical Psychology, Benevolent Royal Government

## 1. 서론

### 1.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현존하고 있는 조선시대 궁궐 중, 창덕궁(昌德宮)은 중국과 일본 등의 다른 유교권 국가의 궁궐과 비교해 보았을 때, 가장 한국적인 특성이 두드러진 대표적인 궁전이다. 그래서 한국 전통건축이론을 승화·발전시켜 한국의 현대 건축의 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어서, 창덕궁에 대한 연구는 중요한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선의 유교사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왕도정치사상이 내재되어 있는 창덕궁의 부용지(芙蓉池) 일곽(一郭)을 대상으로 분석심리학을 통해 분석하여, 이기론이 어떠한 방법으로 건축구성원리가 적용되었는지를 규명함으로써, 한국의 전통사상과 서양의 건축이론의 간극을 좁히는 데에 중점을 두고 진행한다.

전통건축 분석에 융의 분석심리학을 적용하는 것은 여타 다른 정신분석학 이론에 비해, 분석심리학이 동양사상을 적극 수용하고 이를 통해 발전되어왔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분석심리학을 기본 분석이론으로 도입하여, 부용지 일곽의 내외부공간과 구성에 관계된 유교사상 속에 내재된 가치를 재조명하는 동시에, 동·서양 건축을 비교하는 데에 있어서 제 3의 방법론을 모색하면서 그 범용성을 통하여 과거와 현대의 차별성보다는 연속성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고, 정신분석학 이론을 건축에 적용한 건축이론 구축에 일조하는 데에 연구의 목적을 둔다.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칼 쿠스타프 융(Carl Gustav Jung)의 분석심리학(Analytical Psychology)<sup>1)</sup>의 분석심리학을 건축이론에 최초로 적용한 대표

1) 분석심리학은 프로이트, 아德勒와 함께 정신분석학의 개조(開祖)라 할 수 있는 융의 독자적인 정신분석학 이론의 통칭이다. 융은 프로이트의 지형학적 모델을 근거로 하여, 이를 더욱 세분화시키고 발전시켜 4가지의 이론을 구축한다. '퍼스널리티 구성이론(Personality Theory)', '자기

\* 정회원, 한양여자대학 인테리어디자인학과 겸임교수, 건축학 박사

<표 1> 주합루와 부용지 지역의 전각 연혁

위치	건물명	건립연대	왕조 년대	구조 및 특징	평수	기능
부용지	芙蓉池	1770년대	정조초 개축	세조 때 조성된 열무정 전지를 개축	315.2	
	芙蓉亭	1770년대	정조초 개건	정면 3칸, 측면 5칸, 다각형 기와지붕, 익공집, 계자난간의 정자, 단청	9	부용지 완상
지역	映花堂	1640	인조18년 창건 숙종18년 개건(1692)	정면5칸, 측면3칸, 단층 팔작기와지붕, 익공집, 거실 한칸, 온돌 2칸, 대청 삼면 개방문, 단청	21	부용지 완상 유연, 독서, 문작
	四井記碑閣	1690	숙종 16년	정면 1칸, 측면 1칸, 사모기와지붕, 익공집, 단청	25	비각
주합루	魚水門	1776	정조원년	단층 팔작기와지붕, 일각문, 다포집, 문은 사분각의 살문 인방위 옹트림 조각, 단청		문
	宙舍樓	1776	정조원년	정면 5칸, 측면 4칸, 중층 팔작기와지붕, 계십포집, 상층마루, 하층 규장각 서고	상하 78.9	상:어진 불안 하: 서고
지역	書香閣	1777	정조1년	정면 8칸, 측면 4칸, 단층, 팔작기와지붕, 계십포집, 단청	38.9	어진, 어필불안, 후에 잠실로 사용
	喜雨亭	1645	인조23년 창건, 숙종 16년(1690) 취화정에서 희우정으로 개명	2칸집, 한 칸은 마루, 한칸은 방, 단청하지 않았음	3.9	독서, 완상
	齊月光風觀	미상	미상	ㄱ자 민가형 3칸 집, 1칸이 방이고 한쪽은 대청이며 한쪽은 반루	7.3	독서, 완상

정재훈, 한국전통의 원, 도서출판 조경, 1996.8, pp.85~90 참조

적인 작가로 루이스 칸(Louis I. Kahn, 1901~1974)을 들 수 있다.<sup>2)</sup> 루이스 칸은 에펠 데 보자르의 교육과 유럽여행과 연구를 통해 습득한 서양 전통건축에 대한 이해를 모더니즘 건축이론에 적용함으로써 자신만의 건축어휘를 완성하였다.

이처럼 한국 전통건축 역시 분석심리학을 적용함으로써, 건축의 내외부 공간구성원리에 내재되어 있는 사상과 이론들을 현대 건축에 적용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위해 조선시대의 여러 군주 중 왕도정치 사상에 입각하여 자신의 이상을 실현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정조(正祖)의 정치철학이 반영된 부용지(芙蓉池)와 주합루(宙舍樓) 지역의 건축물 배치와 구성을 분석함으로써,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유교사상인 이기설(理氣說)이 내외부 공간구성에 어떠한 방법으로 구현되었는지를 현대적인 관점에서 재구성하고, 현대 건축이론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한다.

본 연구에서 활용되는 분석심리학 이론은 퍼스널리티 구성이론과 자기실현이론, 그리고 심리학적 유형론이다. 이 이론들은 부용지와 주합루 간의 상관관계와 각 건물과 그로 인해 형성된 공간이 가진 상징성을 분석하는 데에 활용되며, 이를 근거로 하여 부용지 일곽과 이기설의 비교분석을 시도한다.

## 2. 부용지 일곽과 이기론의 일반적 고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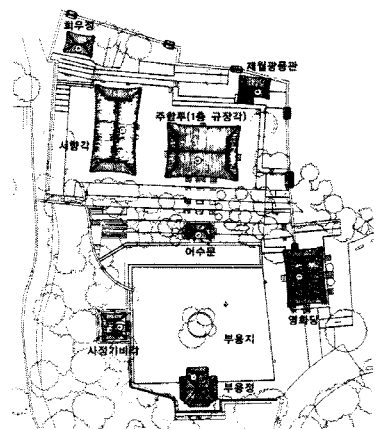
### 2.1. 부용지와 주합루의 전각<sup>3)</sup>

실현이론(Self-Realization), '심리학적 유형론(Psychological Types)', '비인과적 동시성 사고(Acausal Synchronistic Thinking)'이 바로 그것으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이 서양의 전통적인 종교와 문화를 전반적으로 부정한 데에 반해서, 그 연속성을 중요시하고 그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견해를 내세웠다. 그래서 비교문화학과 비교신화학에 응용의 분석심리학은 기본적인 이론으로 매우 중요시 다루어졌다. / 최효식, 건축구성원리의 정신분석학 적용 연구, 홍익대 박사논문, 2008.2, p.29 인용

2) Alexandra Tyng著, 서유석·이강주譯, 루이스 칸의 건축철학(Louis I. Kahn's Philosophy of Architecture), 태림문화사, 1993.12, pp.34-36

3) 최효식, 앞의 박사논문, pp.88-90 참조

<그림 1>과 <표 1>은 부용지와 주합루 지역의 전각 배치와 주요 전각들의 연혁과 구조 및 특징들을 정리한 것이다. 위의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부용지 지역은 방형(方形)의 연못인 부용지와 연못 중앙의 섬, 그리고 부용정(芙蓉亭)과 영화당(映花堂), 사정기비각(四井記碑閣), 그리고 주합루 지역의 언덕 경계에 어수문(魚水門)이 위치하고 있다. 부용지 지역의 현재 건물배치는 정조연간에 완성된 것이지만, 부용지는 원래 세조 때 열무정 전지를 개축한 것으로 부용정은 옛 택수재(澤水齋) 자리에 개건된 건물이며, 사정기비각과 영화당<sup>4)</sup>은 정조가 아니라 숙종연간에 창건 혹은 개건된 건물들이다. 실제로 이 공간에서 정조가 초기 배치에서부터 완성까지 모두 관여한 건물은 어수문 뿐이다.



<그림 1> 부용지 일곽 전각 배치도  
출처: 정재훈, 앞의 책, p.102

이에 비하여 주합루 지역은 주합루와 서향각(書香閣)은 정조가 직접 세운 건축물이다. 제월광풍관(齊月光風觀)은 모든 기록이 미비하여 창건과 그 용도가 추측에 머물고 있지만, 이 건축물 역시 유사한 시기에 신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서향각 뒤쪽 높은 언덕 위에 있는 희우정(喜雨亭)만이 인조 을유년(乙酉年, 1645)에 취향정(醉香亭)란 이름의 초당으로 지어졌다가,<sup>5)</sup> 이후 숙종 16년에 기와집으로 개축되면서 희우정으로 개명된

이후 숙종 16년에 기와집으로 개축되면서 희우정으로 개명된

4) 영화당은 궁궐지에 따르면 숙종 18년(1692)에 고쳐지은 집으로 영화당 앞뜰 충당대에서는 정조와 순조시대에는 전시(殿試)를 보던 장소로서 과거의 시제가 여기에 걸렸다고 한다. / 정재훈, 창덕궁 궁원의 역사적 경관의 수경에 대한 연구, 전통문화논총 창간호, 2003.6, p.273 인용

5) 궁궐지 I 昌德宮志, 서울학번역총서, pp.111-112 참조

기존 건축물이었다.

이중 주합루는 1층에 규장각(奎章閣)을 둔 2층 누(樓)건물로서 정조의 즉위년인 1776년에 건립되었고 정조의 어필(御筆) 편액(扁額)이 걸려있는 중요 건축물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주합루의 서쪽에 위치한 서향각은 주합루를 보좌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전각이었다.

주합루와 부용지 지역의 조영이 내포하고 있는 사상적 배경에는 철학적인 사색을 위한 천인합일(天人合一)의 유학사상이 내포되어 있다. 천원지방(天圓地方)을 상징한 방형(方形)의 연못 속에 원형(圓形)섬을 조성하고, 천지인(天地人)의 이치를 밝히며 군신이 물과 물고기처럼 화합하는 어수문을 통하여 주합루에 오르는 공간구성 속에 천인합일의 사상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즉 정조가 자아완성(自我完成), 그러니까 수기치인(修己治人)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부용지 일곽을 조성한 것이다. 또한 제월광풍관의 독서방에서는 주자(朱子)가 자연에 운둔하여 수학하던 행동양식을 보여줌으로써 주합루 지역이 유교의 사상, 즉 덕(德)·성(誠)·인서(仁恕)를 상징적으로 조영시켰음을 알 수 있게 한다.<sup>6)</sup>

## 2.2. 이기이원론과 이기이원론적일원론

이기론이란 만물의 존재가 이(理)와 기(氣) 두 요소로 이루어졌다고 설명하는 성리학의 이론이다. 당나라 말기 불교의 폐해를 지적하고, 불교의 해탈을 유교의 논리로 재구성했던 이고(李翱)를 계승한 송나라의 주돈이(周敦頤)는, 태극도설(太極圖說)라는 저작을 통해 바깥의 사물에 존재하는 불변자와 자신의 성(性)이 일치한다는 전제 하에, 자신의 성을 인식하기 위하여 바깥 사물에 내재하는 불변자를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방법을 전개하였다. 음양오행으로 구성된 만물의 내면에는 무극(無極)과 태극(太極)이라고 하는 불변자가 있다는 주돈이의 학설을 이은 장재(張載)는 기가 잠시 모여서 형성된 형태가 만물의 현상 상태이며 기가 흩어진 상태인 태허(太虛)가 만물의 본질태라 파악함으로써 만물의 불변적인 본질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태극→음양(陰陽)의 이기(二氣)→오행(五行:金·木·水·火·土의 五元素)→남녀→만물의 순서로 세계가 구성되었다고 논하면서, 인간만이 가장 우수한 존재이기 때문에, 중정(中正) 인의(仁義)의 도를 지키고 마음을 성실하게 하여 성인(聖人)이 되어야 한다는 도덕과 윤리를 강조하고, 우주생성의 원리와 인간의 도덕원리는 본래 하나라는 이론을 제시했다. 그 뒤 정이(程頤)는 만물의 현상태인 음양오행 등을 기로 수렴하고 무극, 태극, 태허 등의 불변하는 만물의 본질을 이로 수렴함으로써 이기론(理氣論)을 완성했고, 주희(朱熹:주자)에게 계승되어 성리학의 중심적인 이론이 되었다. 정이와 주희에 의하여

완성된 이기론은 원래 인간의 불변적 본질인 성(性)을 인식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개된 것이지만, 만물을 변하는 요소인 현상태를 대변하는 기와 불변하는 요소인 본질태를 대변하는 이로 나누는 이원론적 성격을 갖게 되었다.<sup>7)</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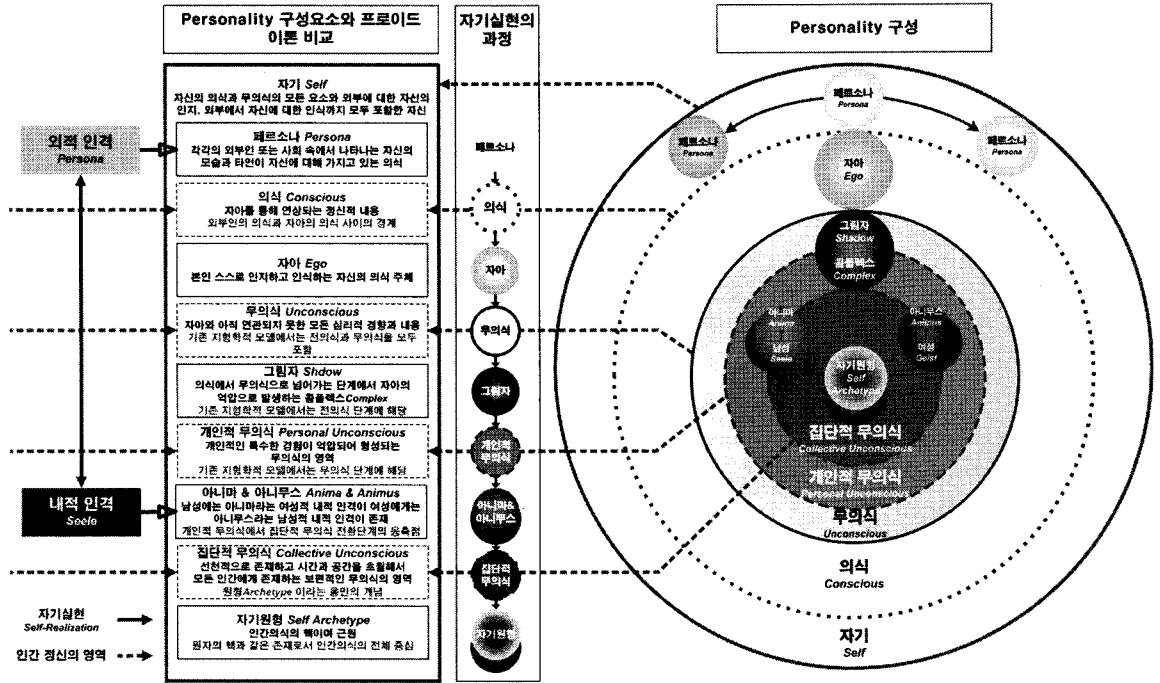
조선유교 이기론의 발단은 서경덕(徐敬德, 1489~1546)이 기일원론(氣一元論)을 주장한 「이기관 무엇인가? (『화담집(花潭輯)』 제2권 원이기(原理氣))」가 그 시작이다. 이후 이황(李滉, 1501~1570)을 비조로 하여 이기이원론(理氣二元論)과 이기호발설(理氣互發說)을 주장하는 영남학파(嶺南學派)와 이이(李珣, 1536~1584)를 시조로 이기이원론적일원론(理氣二元論的一元論)과 기발이승설(氣發理承說)을 주장하는 기호학파(畿湖學派)로 양분되어 많은 논쟁과 분열의 단초를 제공하게 되었다. 그 시작이 바로 이황과 기대승(奇大升)의 사단칠정논변(四端七情論辨)<sup>8)</sup>이다. 이 문제는 이황의 이기호발설을 긍정한 성혼(成渾)과 이를 부정한 이이의 논변으로 이어졌다. 이황은 이발설을 통하여 기에 대한 이의 우위를 분명히 하여, 인간의 순수심성의 발현인 사단을 소중히 하여 인간의 선의지와 이성을 지켜가려는 정신을 표현하였다. 반면, 이이는 기본적으로는 이기이원론을 계승하면서도 “이와 기는 혼연하여 사이가 없고 서로 떨어지지 않으므로 다른 물건이라 할 수 없다”고 함으로써 이기이원론적 입장에 비중을 두면서, 기가 발하고 이가 편승한 칠정 가운데서, 사단은 그 선한 측면이고, 칠정도 그 사단을 포함한 총회자(總會者)라는 내용을 담아 기를 중요시하는 기발이승설을 주장하였다. 한국의 성리학에서는 기본적으로 이기이원론을 수용하지만, 퇴계 이황을 중심으로 하는 수양철학에서는 존재의 본질을 회복하여야 하는 입장 때문에 이를 중시하였고, 율곡 이이를 중심으로 하는 실천철학에서는 현실을 개혁해야 하는 입장 때문에 존재의 현실적 요소인 기를 강조하였다. 그에 이이는 도학 정치의 실현을 이상으로 삼으면서도 현실과 유리된 성리학에 머물지 않고, 학문과 실천을 결합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했다.<sup>9)</sup>

7)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nhn?docid=125533> 참조

8) 사단(四端)과 칠정(七情)을 각각 이의 발현과 기의 발현으로 구분하는 이황의 학설. 성리학의 이기론에서 구체적인 어떤 존재를 구성하는 요소인 기와 그 존재를 그 존재에게 하는 원리로서의 이는 ‘하나이면서 둘이요, 둘이면서 하나(一而二 二而一)’라는 불상리(不相離)·불상잡(不相雜)의 관계를 갖는다.

이황은 사단이란 이가 발동하여 나타난 정(情)으로서 순선(純善)이고, 칠정은 기가 발동하여 나타난 정(情)으로서 유선악(有善惡)이라 했으며, 정지운(鄭之雲)이 지은 《천명도설(天命圖說)》의 내용 중 “사단은 이에서 발하고, 칠정은 기에서 발한다(四端發於理 七情發於氣)”라는 구절을 “사단은 이의 발이고, 칠정은 기의 발이다(四端理之發 七情氣之發)”라고 수정하였다. 반면 기대승은 사단은 칠정의 선일변(善一邊)이므로 사단을 이발(理發)로, 칠정을 기발(氣發)로 대립시키는 것은 불가하며, 사단과 칠정은 모두 이·기의 결합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다. 후에 이황은 “사단은 이의 발이고, 칠정은 기의 발이다”라는 명제를 수정하여 “사단은 이가 발하여 기가 따르는 것이요, 칠정은 기가 발하여 이가 따는 것이다(四端理發而氣隨之 七情氣發而理乘之)”라고 그의 주장을 완화하지만, 근본적으로 이발의 주장은 바뀌지 않았다. /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nhn?docid=725444> 인용

6) 정재훈, 앞의 책, p.82 인용



<그림 2> 분석심리학의 Personality 이론 · Self-Realization이론과 프로이트 이론 비교  
출처: 최효식, 앞의 박사논문, p.30

### 3. 부용지 일곽의 분석심리학 적용

#### 3.1. 분석심리학 이론

<그림 2>는 융의 분석심리학 중, 퍼스낼리티 구성이론과 자기실현이론을 프로이트 이론과 비교하면서 도식화한 것이다. 프로이트 정신분석학 이론과 융의 분석심리학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의식과 무의식의 영역에서 우선 찾을 수 있다. 프로이트는 초기 지형학적 모델에서 인간 정신을 의식(Conscious)과 전의식(Preconscious), 무의식(Unconscious)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성분능(Libido) 이론의 성립 이후, 전의식의 개념을 폐하고 의식과 무의식으로만 나누어 구분하였다. 그 이유는 프로이트는 각 의식과 무의식의 주체들 간의 교류를 중시함으로써, 정신의 영역을 구분하여 경계 짓는 것이 자신의 연구 방향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반면 융은 인간의 정신을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누는 것은 프로이트의 사고와 유사하지만, 무의식을 크게 세 단계의 영역으로 나누어서 바라보았다. 첫 번째는 프로이트가 정의했던 전의식의 개념과 유사한 일반적인 무의식, 즉 인간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에서 좀 더 무의식에 가까우면서, 의식에서 미처 받아들일 수 없는 정신적인 요소들이 그림자(Shadow)라는 의식의 자아가 무의식에 반영된 주체를 통해서 경계와 영역을 구축된 무의식의 개념을 구축하였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의식과 개인의 특수한 경험과 기억으로 형성되는 '개인적 무의식

(Personal Unconscious)'과 오랜 세월을 통해 개인들의 개인적 무의식이 축적되어 선천적이며 보편적인 성격을 가지게 된 '집단적 무의식(Collective Unconscious)'로 나누어 프로이트 정신분석학과의 차별성을 두었다.<sup>10)</sup>

일견 프로이트와 융의 이론은 차이가 있어 보이나, 이는 의식과 무의식의 주체간에 교류를 중점으로 보는 가, 아니면 각 정신의 요소들의 개개의 특성과 그로 인해서 이루어진 정신의 영역에 더 관심을 가지는가에 대한 시각의 차이이지, 인간 정신의 본질에 대한 두 정신분석학자의 생각은 많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프로이트 사후, 그의 이론을 발전시킨 신프로이트와 포스트 프로이트 학파가 융 분석심리학과 유사한 내용을 가진 개념들이 많이 나타난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sup>11)</sup>

#### 3.2. 부용지와 주합루 지역

융의 퍼스낼리티 구성이론을 부용지와 주합루 지역의 분석에 적용했을 시에 가장 중요한 관건은 <그림 3>에서 보여 지는 어수문과 현재 복원되어 좌우 동서로 길게 석단(石壇) 위에 설치한 취병(翠屏)<sup>12)</sup>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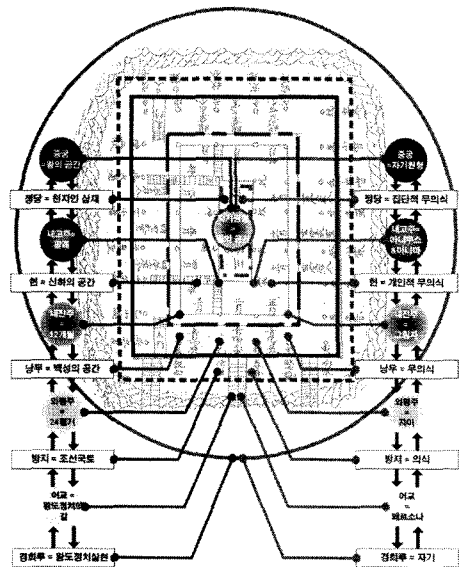
<그림 3> 창덕궁 부용지 어수문 지역 취병  
출처: [http://www.cdg.go.kr/Upload/20080926\\_1.jpg](http://www.cdg.go.kr/Upload/20080926_1.jpg)

10)최효식, 앞의 박사논문, p.12 참조

11)최효식, 앞의 박사논문, p.199 참조

12)취병은 조선궁궐에 자주 활용된 조정 수법으로, 1790년 정조가 건립한 화성행궁(華城行宮)의 낙남헌(洛南軒)의 마당에도 조성되어 있고, 동궐도에서도 10개소의 취병이 있어 영조, 정조년 간쯤에 유행한 왕궁조경의 한 양식으로 추정할 수 있다. / 정재훈, 조선행궁의 조경에 대하여,

9)장재연 著·하우봉 譯, 선비의 나라 한국유학 2천년, 한길사, 2003.12, pp.293-302 ·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nhn?docid=125533> 참조



<그림 4> 경회루 공간과 퍼스널리티 이론 비교 분석  
출처: 최효식, 앞의 박사논문, p.107



<그림 5> 창덕궁 주합루

사상이 적용된 경회루36궁지도(慶會樓三十六宮之圖)에 퍼스널리티 구성이론을 적용해 보면, 경회루 섬과 연못은 조선 백성과 국토를 상징하는 의식의 영역으로 파악될 수 있다. 부용지 역시 하늘을 상징하는 중앙의 원형의 섬과 땅을 상징하는 방형의 연못이 결합되어 현실의 조선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사료된다.

부용지 지역이 현실을 대표하는 기의 공간이라면, 어수문의 위쪽 주합루 지역은 조선왕조의 이상을 내재한 이의 공간으로, 퍼스널리티 구성에 있어서 무의식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주합루라는 전각의 성격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그림 5>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주합루는 2층 건물로서 실제로 주합루는 2층을 말하는 것이고, 1층은 규장각으로서 정조가 유학의 중요한 경전들을 보관하고 학자들에게 연구를 중용하던 곳이었다. 2층 주합루에는 왕을 상징하는 어진(御眞)<sup>13)</sup>, 어제(御製), 어필(御筆), 보책(寶冊), 인장(印章) 등을 봉안<sup>14)</sup>하여 부용지 일곽에서 주합루가 전체적인 중심임을 보여주고 있다. 즉, 조선 국토를 운용하는 조선의 사상과 왕조를 상징하는 주합루 지역은 인간 정신을 움직이는 핵심이 무의식의 공간과 비견되면서 이의 세계를 표방하는 것이다.

2002·정재훈, 창덕궁 궁원의 역사적 경관의 수경에 대한 연구, 전문문화논총 장간호, 2003.6, p.275 참조

13) 어진(御眞): 임금의 화상이나 사진

14) 朝鮮王朝實錄 44집 629면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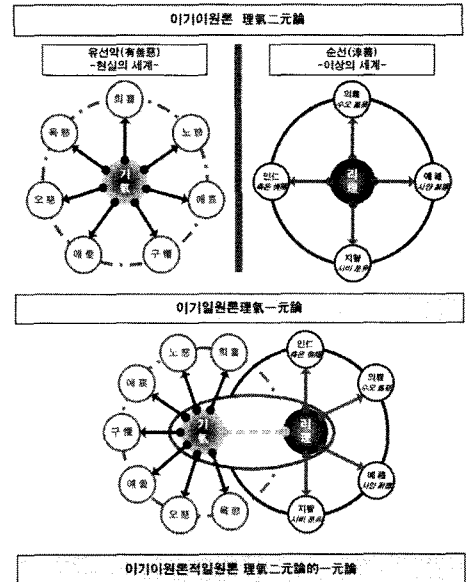
취병으로 구분되는 부용지와 주합루 지역에 인간 정신을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뉘는 <그림 2>의 분석심리학 개념을 적용하게 되면, 부용지 지역은 조선국토와 백성을 상징하면서, 이기론에서 현실성을 대표하는 기의 공간으로 인간의 의식세계를 은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것은 부용지 지역에서 나타나는 천원지방의 구성원리가 조선국토를 형상화하는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였기 때문이다. 일견의 예로 <그림 4>는 천원지방

## 4. 이기론과 부용지 일곽 비교분석

### 4.1. 사단칠정론과 심리학적 유형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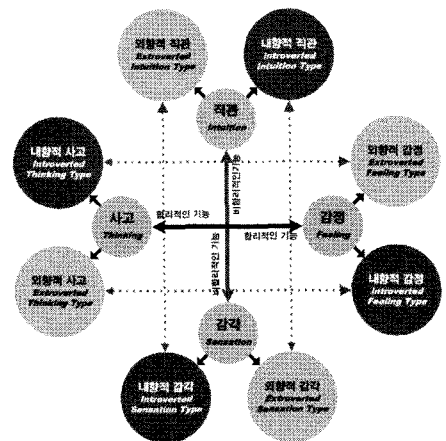
전술한 바와 같이 이기론은 크게 이기이원론과 이기일원론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림 6>은 이 두 이기론과 함께 그 중간적인 입장을 견지한 이기이원론적일원론을 비교한 것이다. 이를 무의식으로, 기를 의식으로 파악했을 때에, 이기이원론은 의식과 무의식의 단절이라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이기일원론 역시 이기를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의식에 속하는 칠정(七情)인 회노애구애오욕(喜怒哀懼愛惡欲)과 무의식에 해당하는 사단(四端)의 인의예지(仁義禮智), 즉 측은(惻隱)·수오(羞惡)·사양(辭讓)·시비(是非)를 모두 같은 선상에 두어서 의식과 무의식의 혼란적인 상황을 야기하고 있다.



<그림 6> 이기론의 비교

반면 이이에 의해 주장된 이기일원론적 일원론은 두 가지 이론의 장점을 취한 동시에, 칠정에 대해 사단의 우위 또한 인정하여, 의식보다 무의식을 중시하는 정신분석학의 사상적 배경과 일맥상통하고 있다.

분석심리학에서 이와 관련된 이론으로는 “심리학적 유형론”을 들 수 있다. 심리학적 유형론은 프로이트와는 상



<그림 7> 융의 8가지 심리학적 유형

출처: 최효식, 앞의 박사논문, p.107



<그림 8> 부용지



<그림 9> 영화당



<그림 10> 부용정



<그림 11> 사정기비각

독자적인 이론으로 인간의 심리학적 유형을 크게 외향형과 내향형 두 가지로 나누고, 정신의 각 특수 기능을 중심으로 각 적응과정에 가장 흔히 쓰이는 분화된 기능(사고, 감각, 감정, 직관)에 따라 구분하여 모두 8개의 심리학적 유형을 만들었다. 일반적으로 심리학적 유형은 인간의 의식이 가지는 심리적 태도에 대한 것이지만, 그 내용 중에는 인간의 의식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유형과 반대되는 심리적 유형이 인간 무의식에 형성된다는 내용이 있다. 이를 도식화한 것이 <그림 7>이다.<sup>15)</sup>

<그림 6>에서 세 개의 이기론이 이기에 대한 해석의 차이는 존재하나 칠정이 기의 발현이고, 사단은 이의 발현이라는 전제는 동일하다. 그러나 심리학적 유형론의 관점에서 보면 이기이원론은 이기의 세계가 단절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이기일원론은 결과론적으로 사단과 칠정이 혼재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이기이원론적원론은 사단으로 구성된 이의 세계를 칠정으로 영역이 형성된 기의 세계가 이를 포함하면서도, 심리학적 유형론에서 의식과 무의식의 심리학적 유형론이 대립항을 이루는 것과 유사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부용지 일대의 분석에서도 유효한 구조로 파악이 된다. 우선 부용지 지역의 전각들을 심리학적 유형론으로 분석해보면, 4개의 기능유형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전각들로 배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일 먼저 창건된 영화당은 초기에는 부용지가 조성되기 전에 그 위치에 있었던 열무정(闕武亭) 전지(前池)의 완상이 그 기능이었으나,<sup>16)</sup> 영조 이후에는 그 기능이 변화하여 정무와 활쏘기 대회, 또는 과거 혹은 내시사의 시험을 치루거나 망배례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던 곳이다. 이런 영화당이 정조가 부용지를 완성하면서 그 기능이 축소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역할을 맡은 곳이었다. 이는 심리학적 유형론의 4기능 중에서 감각(Sensation)이 갖는 특성과 유사하다. 감각은 외부의 자극에 따라서 방향과 지향성도 없이 좌우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어<sup>17)</sup>, 유희의 장소도 되었다가, 정무를 보기도 하고, 과거를 관장하기도 했던 영화당의 성격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부용지를 중심으로 영화당의 반대편에 있는 사정기비각은

영화당과는 다르게 순수하게 비각을 보호하기 위해서만 만든 단일 성격의 건물이다. <그림 7>을 보면 감각에 반대편에 해당하는 심리학적 유형으로 직관(Intuition)이 있다. 영화당의 성격이 외향적 감각(Extroverted Sensation)라면 사정기비각은 이 도식에 따라 내향적 직관(Introverted Intuition)의 성격을 가져야 한다. 원래 내향적 직관은 정신세계의 기능성을 중시하기에 현실성이 결여되는 특성을 가지게 된다<sup>18)</sup>. 사실, 사정기비각은 비를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쪽에 문을 둘 필요가 없다. 그러나, 부용지를 중심으로 영화당과 사정기비각, 부용정과 어수문의 대칭성을 유지하기 위해 문을 두고, 그 대칭성을 통해서 부용지를 더 선경으로 보이도록 한 이 공간구성 방법으로 보았을 때, 사정기비각은 직관을 상징하는 전각이라고 볼 수 있다.

영화당이 감각, 사정기비각이 직관이라면 자연스럽게 부용정과 어수문은 감정과 사고의 기능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0>의 부용정은 부용지의 감상을 위해 조성된 정자로서, 기분의 쾌·불쾌에 따르는 감정(Feeling)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sup>19)</sup>. 그렇다면 반대에 위치한 <그림 3>의 어수문은 감정에 반대쪽에 위치한 사고(Thinking)가 되어야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어수문은 군신의 조화를 상징하는 문이자 현실과 이상의 세계를 연결시키는 곳으로, 주어진 관념내용을 고유의 법칙에 따라 서로 연관시키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고의 특성<sup>20)</sup>과 부합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칠정의 모든 요소랑 부용지 지역의 전각들이 가지는 심리학적 유형론의 특성과 전적으로 일치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심리학적 유형론은 자아가 현실에서 적응하여 발현하는 페르소나(Persona)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기론에서 칠정이 발현되는 근본인 기와 페르소나와 의식의 영역에서 주체인 자아(Ego)는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방형의 연못에 원형으로 조성된 부용지의 중심점은 부용지 지역의 모든 전각을 공간적으로 조율하는 중심으로서 자아이자, 기를 상징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어수문을 경계로 부용지의 위쪽 언덕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선왕조를 상징하는 유물과 유학의 경전이 들어 있는 주합루를 중심으로 이의 세계를 표방하고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사실은 바로 부용지와 주합루지역이 경사언덕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분석심리학에서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그림자(Shadow)의 개념이 있다. 여기에는 의식에서 수용하지 못한 정신적인 내용이나 감정을 무의식화한다는 내용도 있지만, 이를 통해서 의식과 무의식을 연계한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그렇기에 분석심리학적 차원에서 보자면, 부용지와 주합루 지역을 연결하는 어수문에 배치되어

15)이부영, 분석심리학-C.G.jung의 인간심성론, 일조각, 1999.5, pp.126-18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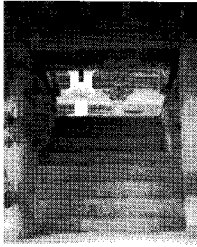
16)朝鮮王朝實錄 43집 55면, 176면, 205면, 334면, 338면 참조

17)이부영, 앞의 책, pp.162-168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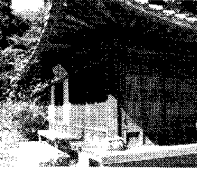
18)이부영, 앞의 책, pp.175-177 참조

19)이부영, 앞의 책, pp.154-16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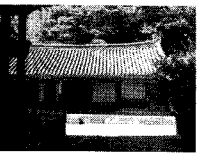
20)이부영, 앞의 책, pp.144-147 참조



<그림 12> 부석사 계단



<그림 13> 회우정



<그림 14> 서향각

있는 경사계단은 그림자로 볼 수가 있다. 이는 한국 전통건축의 공간배치에서 자주 활용되는 방법으로 그 대표적인 예로 부석사 무량수전 앞 계단이 있다. 중심불전의 영역과 보살단의 영역을 연계하는 데 있어서 산의 경사를 자연스럽게 살리면서 계단을 통해 연계하면서 분리와 연결을 동시에 추구했던 수법이 그대로 부용지 일곽에도 적용이 된 것이다.

이처럼 어수문을 경계로 하는 영역이 일반적인 무의식이라면, 서향각과 회우정을 포함한 영역은 개인적 무의식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그것은 두 전각과 이의 공간에 중심인 주합루의 성격을 비교해보면 자명해진다. 원래 회우정은 주합루 지역 언덕에 있었던 취향정이라는 명칭의 전각이었으나, 숙종대에 세종연간에 기우제를 열어 큰 비를 내리게 했다는 회우정의 고사를 기리고자 개명을 했던 것이다<sup>21)</sup>. 조선시대는 농경사회로서 왕도정치(王道政治)의 이상을 실현시키기 위해 농업의 안정은 중요한 관건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조선왕조의 상징이었던 주합루를 보좌하는 회우정은 자기원형을 보좌하는 아님아 혹은 아님무스적인 존재로 볼 수 있다.

회우정이 아님아 인지, 아님무스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서향각의 기능에서 좌우된다. 서향각은 초기에는 어진과 어필을 보관하고, 주합루가 조성된 이후로는 잠실(蠶室)로 사용되기도 했지만, 주 기능은 주합루를 보좌하면서 미처 주합루에 소장되지 못한 왕실관련 기록들을 소장하는 공간이었다.<sup>22)</sup> 이에 주합루는 유교사회의 가부장적인 성격을 반영하고 있기에, 그에 보좌되는 서향각은 아님무스, 회우정은 자연스럽게 아님마의 성격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주합루와 회우정, 서향각이 그 기능에 따라, 분석심리학에서 분명한 성격을 가지지만, 제월광풍관은 정확한 영건시대나 기능에 대한 기록이 부족하여 그 성격을 규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그림 16>의 제월광풍관 내부를 보면, 제기(祭器) 또는 책을 보관할 수 있는 수납공간이 있는 것을 보아, 이 전각은 주합루나 회우정에 제례(制禮)가 있을 때에 물품들을 보관하거나, 주합루 1층의 규장각에 있는 서책들을 가지고 정조가 독서를 하는 공간으로서, 중심전각인 주합루의 그림자적인 존재임을 알려주고 있다. 분석심리학에서 그림자는 의식과 무의식의 영역을 규정짓는 요소라는 개념도 있지만, 각 정신의 주체에 대해 대립쌍에 해당하는 개념도 있다.<sup>23)</sup> 제월광풍관이

주합루의 그림자라는 것은 그 명칭과 배치를 살펴보면 확연해진다. 제월광풍이라는 명칭은 송나라 황정건이 주돈이의 인물됨을 이야기하는 여광풍제월(如光風霽月)의 문구에서 유래된 것<sup>24)</sup>으로 이것만으로도 제월광풍관이 주합루처럼 유교적인 이상을 상징하는 공간임을 입증해주고 있다. 그에 더하여, 배치상 제월광풍관의 누마루에서 주합루와 부용지가 하나의 시각으로 들어와 부용지 일곽을 전체적으로 포용하는 공간이 됨으로써, 주합루와 더불어 왕도정치적인 이상을 상징하는 곳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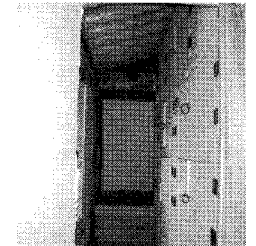
주합루 지역은 부용지 지역과는 다르게 사단의 성격과 각 전각의 성격이 부합되고 있다. 첫 번째로 주합루는 1층이 유교경전 등이 봉안된 규장각이지만, 어진 등이 봉안된 2층은 예제(禮制)의 공간으로 사단 중에서 예(禮), 즉 사양의 공간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회우정은 기우제를 통해서 농업이 증흥되어 백성을 이롭게 한다는 민본사상이 내재되어 인(仁)의 공간, 그러니까 측은의 공간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서향각은 각종 기록을 보관하는 곳으로 지식의 보관소라 하여, 지(智) 즉 시비(是非)를 상징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제월광풍관은 왕도정치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왕이 머무는 공간으로 광명정대함을 통해서 올바른 정치를 행하라는 의(義), 즉 수오의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왕도정치의 사상이 내재된 유교경전이 소장된 주합루의 1층인 규장각이 바로 이면서 자기원형이 된다. 이처럼 주합루 지역의 각 전각들은 이에서 출발한 사단의 성격을 대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4.2. 이기이원론적일원론과 퍼스널리티 구성이론

<그림 17>은 부용지 일곽의 대지와 배치를 퍼스널리티 구성이론과 비교분석한 것이다. 부용지 일곽은 거의 공간인 부용지 지역과 이의 공간인 주합루 지역으로 나뉘지기에, 기대승의 이기이원론은 적합하다 볼 수 없다. 두 공간이 분리된다는 측면에서는 이황의 이기이원론이 적합할 듯싶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수문과 계단을 통해서, 의식과 무의식이 단절되어 있으면서도 그림자라는 요소를 통해서 연계된 것처럼 현실과 이상을 상징하는 두 공간이 시각적으로든, 영역적으로든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와 같은 관점에서 보자면, 두 영역으로 구분되면서도 하나로 결합되어 왕도정치의 이상이 실현된 조선국토를 상징하고 있는 부용지 일곽은, 이와 기가 분리되어 있으면서도 서로 결합하여 현실과 이상이 조화되는 이기이원론



<그림 15> 제월광풍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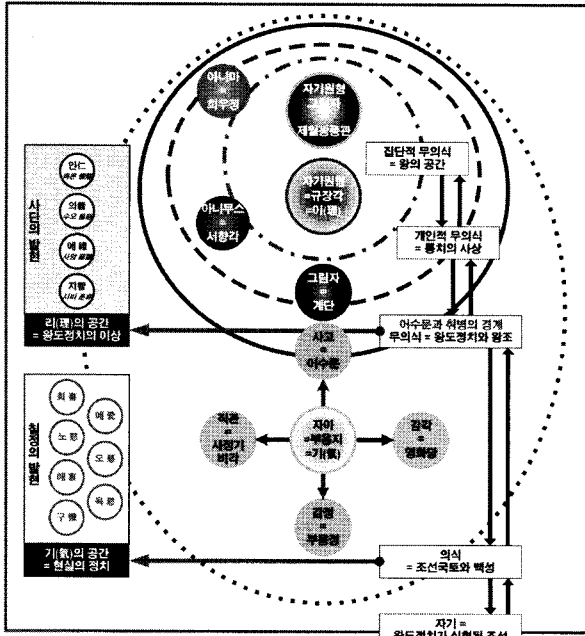
<그림 16> 제월광풍관 내부

21) 朝鮮王朝實錄 39집 222면 참조

22)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nhn?docid=90004> 참조

23) 이부영, 앞의 책, p.76 참조

24) 정재훈, 소쇄원, 대원사, 2002.7, p.30 참조



<그림 17> 부용지 일곽 배치 비교 분석

적일원론의 구성원리와 매우 유사하다. 이는 정조의 정치적 성향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정조는 예제에 치우쳤던 조선시대의 유교사상에 한계를 느끼고, 실질을 중요시하는 실학사상을 이끌었던 군주로서, 규장각에 당시 정적이었던 남인계와 노론계의 학자들을 적서의 구분 없이 고루 등용시켜, 정사를 논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반 문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그래서 정조는 규장각을 내각(內閣)이라고 칭하기까지 하였다.<sup>25)</sup> 것처럼 앞서가는 개혁군주였지만, 정조 역시 유교에 대한 가능성을 신봉하였고, 왕을 중심으로 사농공상(士農工商)이 보좌함으로써 이상적인 국가를 건설할 수 있다는 왕도정치 사상에 정조는 심취해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왕과 유교사상을 주합루 지역에 두고, 신하와 백성을 부용지 지역에 비교한 이기이원론적 공간구성원리를 부용지 일곽에 적용한 것으로 사료된다.

## 5. 결론

부용지 일곽은 창덕궁의 금원에 있어서 유교적인 사상과 자연 무위사상을 가장 잘 조화시킨 공간이다. 이에 분석심리학을 도입하여 이기론과 비교분석을 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수문과 취병으로 부용지 일곽은 부용지와 주합루 지역으로 나뉘며, 부용지 지역은 조선 국토를 구현하는 현실적인 세계로서 기의 세계와 인간 정신에서 의식을 표방하고 있고, 주합루 지역은 조선왕조에 의한 왕도정치의 이상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이의 세계와 함께 무의식을 상징하고 있다.

둘째, 현실을 대변하고 있는 기의 공간인 부용지 지역에서

기와 퍼스널리티 구성이론의 자아를 상징하고 있는 곳은 천원지방의 사상이 내재되어있는 부용지의 중심점이며, 이상을 추구하는 이의 공간인 주합루 지역에서는 정조가 신봉했던 왕도정치의 사상이 담긴 유교경전들이 보관된 규장각이 이와 함께 자기원형(Self Archetype)을 상징하는 전각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비록 부용지 지역은 사단칠정론에 따른 기의 발현에 결과인 칠정에 부합되는 전각들은 아니지만, 의식의 주체인 자아의 변용이라고 할 수 있는 정신의 4기능을 상징하고 있는 페르소나를 가진 4개의 전각이 이를 대변하고 있다. 반면, 주합루 지역에서는 희우정, 제월광풍관, 규장각의 2층인 주합루, 서향각이 각각 사단인 인의예지를 상징하면서도 퍼스널리티 구성이론에서 있어서 무의식의 주체적인 요소들이 가지는 특성까지도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부용지와 주합루 지역을 잇는 어수문과 경사언덕의 계단은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를 구축하는 데에 역할을 하는 그림자(Shadow)를 상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네 번째, 부용지와 주합루 지역은 둘로 나뉘지면서도 서로 연계되어 하나로 통합되어 왕도정치의 이상이 실현되는 조선의 국토와 백성을 상징하고 있다. 이는 실천과 이상을 조화시키고자하는 정조의 정치적 성향을 고려해 보았을 때, 이기론 중 이의 학풍을 이은 이기이원론적일원론의 특성을 보인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이 창덕궁 부용지 일곽을 분석심리학을 통하여 이기론과 비교분석해 본 연구결과이다. 이처럼 한국 전통건축은 각각의 전각들에 내재되어 있는 상징성을 공간적으로 배치하고 연계하여, 하나의 완성적인 공간구성원리를 구현하는 것이 그 특성이라 할 수 있다. 반면 현대건축은 이를 축약하여, 하나의 건축물에 모두 포함시켜 건물의 동선과 매스를 통해서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만일, 본 연구에서처럼 전통사상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면서, 이를 수직동선, 혹은 단위공간의 결합을 통해서 재구축을 할 수 있다면 앞으로 현대건축계획과 설계의 내외부 공간 구성에 있어서 새로운 방법론을 모색할 수 있다고 사료 된다.

## 참고문헌

1. 박언근, 한국건축사강론, 문운당, 1998.8
2. 강제언·하우봉·선비의 나라 한국유학 2천년, 한길사, 2003.12
3. 김동욱, 한국건축의 역사, 기문당, 1997.8
4. 대한건축학회·한국건축사, 대한건축학회, 2003.1
5. 이강근, 한국의 궁궐, 대원사, 2001.8
6. 이부영, 분석심리학-C.G.jung의 인간심성론, 일조각, 1999.5
7. 정재훈, 소쇄원, 대원사, 2002.7
8. 정재훈, 조선행궁의 조경에 대하여, 2002
9. Alexandra Tyng·서유석·이강주·루이스 칸의 건축철학(Louis I. Kahn's Philosophy of Architecture), 태림문화사, 1993.12
10. 궁궐지 I 昌德宮志, 서울학번역서
11. 朝鮮王朝實錄
12. 최효석, 건축구성원리의 정신분석학 적용 연구, 홍익대 박사논문, 2008.2
13. 정재훈, 창덕궁 궁원의 역사적 경관의 수경에 대한 연구, 전통문화 논총 창간호, 2003.6

25) 강제언·하우봉·선비의 책, p.380 참조